

# 내가 바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행복을 나누다! -예비사회적기업 평생학습공동체 오만-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신영현

최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며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몇년 전부터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쳐온 곳이 바로 교육과 문화예술을 통해 회원 개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적 공익까지 함께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평생학습공동체 오만이다.



평생학습공동체 오만 정기총회

지난 2015년 7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목표로 천안의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임의단체로 설립한 오만은 단 몇년의 짧은 시간 안에 지역의 교육 및 문화예술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알 만큼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학습을 통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오만은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바로 지난 해부터 2년여의 준비와 도전 끝에 드디어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학습과 문화공유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오만 스스로의 미션을 본격적으로 시험해 볼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학습과 문화 향유를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 스스로가 먼저 변화를 통해 품격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오만의 비전이라고 밝히는 최재권 이사장은 그래서 오만의 사업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바로 오만이 다양한 단체들과 제휴하거나 업무협약을 통해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이유이다.

단순히 초창기의 교육 및 문화 예술 분야의 공연 전시 기획에 그치지 않고 오만은 현재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등 다양한 영역의 공공정책과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자문과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고 있다.



공간나눔사업장 사업 및 독서동아리 워크숍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간중심 퍼실리테이션연구소 및 말하기·글쓰기연구소, 융합예술 연구소 등의 산하 기관들을 설립하며 지난해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아산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사업단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 및 대행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테마가 있는 북토크  
**시 읽는 여름밤**

시 간 19:00 ~ 21:00  
장 소 신불당아트센터 3층 M\_Station 2  
문 의 010-9484-6390

일시	작가	내용
2022. 06. 16.(목)	안도현	농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장기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 장비
2022. 06. 23.(목)	김미희	늘면서 시 쓰는 날 / 서해문집
2022. 06. 30.(목)	이정복	그럴 때가 있다 / 장비
2022. 07. 07.(목)	송광동	꿈꾸는 소리하고 지냈잖네 / 장비
2022. 07. 14.(목)	정세훈	내 모든 아픈 이웃들 / 푸른사상

**천안시 실내악 향연**  
오만챔버앙상블이 여는 향연의 서막

박재원 김정원 임진영 한혜진  
임형진 권영아 이민 박지훈

2022. 07. 03.(일) 18:00  
신불당아트센터 아트홀

티켓 | 전석초대(무료)  
문의 | 041)566-5005, 010-3229-4444

주최·주관 천안법인 평생학습공동체 오만 후원 천안문화재단

평생학습공동체 오만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포스터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해 매년 전국에서 5개 지역만 선정하는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사업에 선정돼 초창기 30여개에 불과했던 지역내 독서동아리를 3년만에 80여개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연예술창작소 [퍼다]초청공연

**아들과 아버지**  
연출 이인호  
원작 이정복

당진문화원  
2022.05.24.(화) 15시

CAST  
박성은 신주봉 전장근 원종연 이명숙 이인호

시놉시스 & 작품소개  
이정복 시인의 [아들과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와 동화, 소설의 아우라를 작품을 채워주고 따뜻한 낭독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만아 소리에 집중하여 깊은 울림과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남들과 거기에 첨가된 움직임과 인간을 위한 연극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남독극. 그런 남독극으로 이정복 시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를,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STAFF  
감독 겸 연출 이인호

주최 당진교육지원청 후원 천안법인 평생학습공동체 오만



공연예술창작소 [퍼다] 초청 공연

또한, 지난해 개관한 M갤러리의 전시기획을 통해 다양한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오만 내 회원들이 모여 만든 공연예술창작소 [피다]의 「아들과 아버지」 낭독극 공연, 오만챔버앙상블 창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연이어 선보이며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오만챔버앙상블 창단연주회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진 사람 중심의 학습공동체로 시작해 교학상장(敎學相長 :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가 성장한다)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학습하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공익을 향해 날마다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오만이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더욱 가치있게 펼쳐 나갈 그날을 함께 기대해 본다.